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9호 [무게 제23071호] 주체99 (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악단은 공연무대에 합창과 관현악 녀성민요독창 《버드나무》, 합창과 사랑과 전통적인 생활풍습, 민족적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로씨야전시가요 환상편곡》, 《전우 바얀독주 《전신가까운 숲속에》, 바이 정서를 높은 예술적기교로 잘 보여 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를 비롯한 여 지금 어데 있는가》, 남성3중창 울린독주 《차르다쉬》, 합창 《승리의 주였다.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28일 책임간부들과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떠날 때는 왔다》, 남성독창과 합창 날》, 우리 나라 노래들인 《어디에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의 일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위대한 그 년대에 경의를》, 합창과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내 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 로씨야인민배우, 공훈배우들과 국제 무용 《갈리카》, 남성독창 《조국은 향》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하시였다. 콩쿨수상자들을 비롯하여 이름있는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군관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지휘자, 성악가, 연주자들로 구성된 녀성독창 《푸른 수건》, 《가짜사》, 조국에 대한 로씨야인민의 열렬한 본사정치정보단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들속에서》(87)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회상 실기집 《인민들속에서》(87)를 출판하였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나날에 공장과 농촌을 끊임없이 찾으시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근로자들을 이끌어주시고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따사로운 품에 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푸신 내용을 담은 회상실기 19편이 편집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만민이 우리르느 사상과 령도의 천재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회상실기 《opus 혁명사적들을 고증해주시며》, 《혁명선 렬들의 빛을 굳건히 이어가도록》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시어 오랜 시간에 걸쳐 초기혁명활동 시기의 혁명사적자료들을 고증 해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이야기와 혁명가유자녀들이 혁명의 1세대처럼 백두의 혈통을 뜻깊이 이어가도록 이끌어주시신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평양시의 어느 한 경무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무원들이 언제나 혁명적정각성을 가지고 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군인들의 편의를 잘 보살피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이 회상실기 《평화적 기분을 사로잡혀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언제나 병사들속에 계시며 뜨거운 사랑을 베푸신 자애로운 아버지의 한없는 은정에 대한 이야기가 회상실기 《수령님 보아주시는 병사들의 군복》에 담겨져 있다. 회상실기 《영원발전소와 더불어 길이 전할 이야기》, 《새로 세운 편직공장에 찾아오시어》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녀성들을 찾으시어 몸소 언저 위치까지 잡아주시며 발전소건설을 위하여 기술인력 로고와 새로 건설된 원산편직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나아가길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녀성들이 사대의 주인공, 창조자로 자라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조국건설에 나가시어 산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우할 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며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한 감동깊은 사실들이 회상실기 《호반포리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였습니다》, 《인민들의 소박한 청도 귀중히 여기시고》, 《묘향산등산길에 어린 송고한 사랑》에 반영되어있다. 도서에는 이밖에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적 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전하는 《건국일군이라 불러주시며》, 《영원한 심장의 노래 부르리》, 《대학생기숙사에도 찾아오시어》 등의 회상실기들이 편집되어 있다. 《인민들속에서》(87)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대 비약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 백승의 기지이다》를 로씨야 나호드카 호르마트출판사에서 12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탈리아 헤르모주에서 사상, 선군사상연구소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본사기자

### 대고조전투장들에 천리마의 기상 내린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생산도도, 《의천속도》로 본사기자 장정일

## 힘있게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각지 당 조직들에서

각지 당 조직들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세가 벌어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전개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진계장면합기업소 5월 17일공장 당조직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주적 영웅주의를 발휘해나가기 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대주적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격화시켜, 종업원들을 적극 불러들이고 주체철생산체제를 확립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받아들이도록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또한 생산건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고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두가 혁명적신심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게 하고있다. 만경대혁명사적관 당조직에서는 만경대혁명사적지를 우리 혁명의 만년제로 보존관리하고 그를 통한 대중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강사들과 종업원들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비상한 창조정신을 가지고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최근년간 이들은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알콜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공정을 짧은 기간에 꾸리고 CNC 공정을 실현하여 비날론생산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이곳 강사들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2 800개 단위에 나가 5 000여회의 이종강의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550만명의 국내외의 참관자, 근로자들에 대한 해설강의를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뿐만아니라 산불막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양묘장을 리용하여 해마다 7 000-1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판리함으로써 사적지를 태양의 성지답게 수련화, 원림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장군님 정령현농장 당조직에서는 문화회관과 농업과학기술지식선진실들에 수련형의 위대성교양자료들을 비치해놓고 농장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함신하게 진행하여 그들이 선군시대 애국근민의 본분을 다하게 하고있다.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많은 면적의 다랑이와 배기논을 구역조정으로 만들려 노력하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대중을 발동하여 최근년간 270여동의 살림집을 새로 짓고 문화회관과 편의봉사시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였으며 파수원과 댜나무림을 조성하여 농장원들이 그 덕을 보게 하였다. 이밖에도 온성지구관평련합기업소 상화청년단청년경에서 송사카메라와 콤포트를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석탄생산을 종전대 비하여 훨씬 늘이는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을 비롯하여 흥남대흥수산기업소, 동대원공예작품생산공장 등 많은 단위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전진 령남 배수리 공장에서

령남 배수리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올해 공중사업과 공중주조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4월계획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할 자신심에 넘쳐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하며 공과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될수 있고 강성대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수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을 현대적인 배수리까지 더욱 발전시켰으며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생산에서 커다란 은을 낼수 있도록 대주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문화명, 김광남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꾼들은 언제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과학기술적중추를 찾아내고 기술자, 로동자들이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수많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도록 적극 떠들어주었다. 일꾼들은 생산지도이자 기술지도라는것을 명심하고 공장합동부 기술부서의 역할

본사기자 명흥속

# 김종린 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종린동지는 심근경색으로 주제99 (2010)년 4월 28일 1시 10분에 86살을 일기로 예석하게도 서거하였다.



김종린동지는 당과 수령의 평도를 높이 받들고 주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충직한 혁명전사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빈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과 멸시속에서 살아오던 김종린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유능한 일군으로 자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종린동지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오랜 기간 당중앙위원회에서 여러 직책들을 책임하면서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 조국통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였다.

김종린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김종린동지는 일찍부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평도를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제99 (2010)년 4월 28일

높이 받들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국제적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김종린동지는 우리 당의 주제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주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쳤다.

김종린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적원칙성과 소박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의 높은 신임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높은 충실성과 실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당의 위업을 받들어온 김종린동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슴아픈 손실로 된다.

김종린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 고 김종린동지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

2. 고 김종린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전병호	위원 주상성	위원 최봉해
위원 김영일	위원 장성택	위원 박도춘
위원 김영춘	위원 강능수	위원 리태남
위원 리용무	위원 김영일	위원 태종수
위원 오극렬	위원 김양건	위원 김희택
위원 김정각	위원 김성규	위원 강양모
위원 김일철	위원 최희정	위원 백계룡
위원 최태복	위원 김정임	위원 림경만
위원 양형섭	위원 채희정	위원 리용철
위원 김국태	위원 김동이	위원 김병팔
위원 김기남	위원 최영림	위원 로성실
위원 박범기	위원 홍석형	위원 홍인범
위원 김영대	위원 김평해	위원 강관주
위원 류미영	위원 김라희	

# 고 김종린 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에서

고 김종린 동지의 명구는 평양시 들은 4월 29일 10시부터 20시까지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되어 맞이할것이다.

4월 30일 8시에 고인의 명구를

고인과 영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조객

발민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종린동지는 주제12 (1923)년 12월 7일 자강도 우시군 빈농민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 김종린 동지의 락력

동지는 주제35 (1946)년부터 조선로동당 벽동군위원회 부장으로 사업하면서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불어넣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주제51 (1962)년 최고인민회의 제3기 때부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김종린동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공로로 하여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국가 표창을 받았다.

김종린동지는 주제99 (2010)년 4월 28일 1시 10분 심근경색으로 서거하였다.

김종린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당의 평도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김종린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투쟁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김영일동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무원 총리가 답전을 보내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동지  
우리들은 당신들이 중국 청해성 옥수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위문전문을 보내준데 대해 중국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또고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또고공화국 대통령 포르 에소집나 그나쓰그베각하  
나는 또고독립 5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저메이커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열려나 레트메이 주조 저메이커 특명전권대사가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 선군사상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신현군 지남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세계보건기구 총국장과 적십자 및 적반월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세계보건기구 총국장과 적십자 및 적반월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한 중요요구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봄철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 작전을 잘하고 방법론있게 내밀 때

### 은 파 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은 파 군의 일 군 들 과 농 장 원 들 이 주 체 농 밭 의 요 구 대 로 씨 를 적 기 에 질 적 으 로 뿌 리 고 모 판 관 리 를 잘 하 고 벼 모 들 을 하 나 가 리 실 하 게 키 워 내 고 있 다. 이 성 과 는 군 일 군 들 의 혁 명 적 이 며 전 투 적 인 사 업 기 투 과 모 판 관 리 를 메 어 놓 고 생 각 할 수 있 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 음 과 같 이 지 적 하 시 었 다.

《 일 군 들 은 당 의 령 도 방 식, 사 업 기 투 를 따 라 배 워 우 리 혁 명 방 전 의 새 로 운 단 계 로 변 화 된 환 경 에 맞 게 모 든 사 업 을 장 조 적 으 로, 혁 신 적 으 로 해 나 가 야 합 니 다. 》

지 난 3 월 초 어느 날 군 일 군 들 은 씨 뿌 리 기 와 모 판 관 리 모 제 를 농 고 도 의 를 거 무 하 였 다. 여 기 서 초 절 을 모 은 것 이 씨 뿌 리 기 에 날 리 게 페 네 도 없 이 차 질 것 으 로 예 견 된 다. 기 상 관 측 자 료 에 따 라 대 책 을 바 로 세 우 는 문 제 였 다.

일 군 들 은 바 람 탁 이 바 자 를 들 러 치 고 모 판 에 부 토 토 를 두 림 히 깔 아 주 며 부 토 준 비 를 잘 하 는 문 제 여 러 가 지 안 을 내 놓 았 다. 물 론 이 것 은 중 요 한 문 제 들 이 었 다.

하 지 만 군 당 책 임 일 군 은 기 온 이 떨 어 지 고 날 리 게 변 디 스 러 운 조 건 으 서 이 것 으 로 만 족 할

수 없 었 다.

조 건 이 불 리 할 수 록 앞 질 러 방 도 를 찾 아 롱 이 크 게 일 판 을 벌 리 나 갈 때 생 파 를 거 무 수 있 지 않 았 는 가.

이 령 도 문 제 를 제 기 한 그 는 일 군 들 에 게 일 제 기 어 버 리 수 령 도 께 서 는 주 체 농 밭 을 창 시 하 시 고 논 벼 농 사 에 서 가 장 중 요 한 것 이 물 문 제 를 푸 는 것 이 라 고 가 르 쳐 주 시 었 다. 이 런 관 점 으 서 다 시 한 번 깊 이 생 각 해 보 자 고 하 였 다.

물 론 의 견 이 었 다.

이 를 계 기 로 각 작 영 일 군 들 은 씨 뿌 리 기 때 는 물 론 모 판 관 리 시 기 에 알맞 추 문 물 문 제 도 보 장 하 는 것 이 선 차 적 인 문 제 라 고 하 면 서 그 방 도 를 찾 아 나 갔 다. 그 파 정 에 모 판 마 다 저 루 지 를 만 들 어 물 을 채 워 넣 고 태 양 령 도 덩 어 리 씌 워 얼 마 는 가 능 하 다 는 안 이 제 기 되 었 다.

그 럼 다 면 그 많 은 저 루 지 들 에 물 을 어 떤 방 법 으 로 채 우 겠 인 가.

이 때 한 일 군 이 자연 호 흡 식 물 을 기 울 이 제 시 저 루 지 마 다 물 이 흘 러 들 게 하 면 얼 마 는 지 가 능 하 다 는 방 도 를 내 놓 았 다. 양 수 동 력 설 비 를 쓰 지

않 고 전 기 를 절 약 하 면 서 도 씨 뿌 리 기 에 필 요 한 물 문 제 만 아 니 라 온 도 까 지 도 충 분 히 보 장 할 수 있 는 혁 신 적 인 안 이 었 다. 그 런 데 문 제 로 제 기 된 것 은 청 지 나 다름 없 는 벌 지 대 에 서 자연 호 흡 식 물 길 건 설 이 가 능 하 겠 는 가 하 는 것 이 었 다.

그 때 군 당 책 임 일 군 은 대 중 의 창 조 적 지혜 와 힘 을 발 동 하 면 못 해 볼 일 이 한 없 고 다 한 당 의 뜻 을 새 겨 안 고 군 일 군 들 과 함 께 아 래 에 내 리 갔 다. 그 들 이 강 안 협 동 농 장 제 3 작 영 반 에 들 었 을 때 작 영 반 장 은 지 난 해 자연 호 흡 식 물 길 을 제 시 고 덕 을 크 게 보 았 고, 아 무 리 청 지 나 도 물 길 보 막 이 만 잘 하 면 얼 마 는 지 물 이 흘 러 가 게 할 수 있 는 가 하 는 것 이 었 다.

군 일 군 들 은 현 지 를 답 사 하 면 서 자연 호 흡 식 물 길 을 제 기 위 한 방 도 를 찾 았 다.

공 사 량 은 방 대 하 였 다.

1 만 여 m<sup>2</sup> 의 토 량 을 처 리 하 여 보 를 막 고 수 심 1m 의 물 길 을 제 아 하 였 다. 사 업 을 롱 이 크 게 설 계 하 고 대 담 하 고 재 결 하 면 그 어 떤 어 떤 일 도 제 힘 으 로 해 결 할 수 있 다 는 것 을 명 실 한 군 일 군 들 은 한 주 일 단 안 에 공 사

를 끝 내 목 표 를 내 세 운 다 음 군 안 의 모 든 기 계 수 단 을 총 집 중 시 켰 다. 군 안 의 모 든 농 장 들 에 서 는 모 판 까 지 에 어 루 지 를 만 들 고 자연 호 흡 식 물 길 을 편 결 하 기 위 한 전 투 를 벌 렸 다. 그 리 하 여 씨 뿌 리 기 전 투 가 시 작 되 기 전 에 공 사 를 완 공 함 으 로 해 군 안 의 모 든 농 장 들 에 서 저 루 지 마 다 물 을 가 득 채 워 넣 고 씨 뿌 리 기 를 시 작 하 게 되 었 다.

다 수 화 품 종 의 벼 종 자 를 받 아 들 이 는 문 제 가 제 기 되 었 을 때 의 경 우 를 논 고 하 였 다.

군 일 군 들 은 이 문 제 를 논 고 협 의 하 였 다.

불 리 한 자연 기 후 조 건 을 이 거 처 리 한 다 수 화 품 종 의 씨앗 을 어 떻 게 뿌 리 고 모 를 실 하 게 키 워 내 지 면 어 떻 게 해 결 하 는 가 하 는 것 이 었 다. 이 문 제 를 논 고 협 의 하 였 다.

이 런 기 계 수 단 들 을 예 전 성 의 기 풀 어 주 지 않 고 서 는 존 중 성 과 를 기 대 할 수 없 었 다.

군 협 동 농 장 정 영 위 원 회 일 군 들 을 비 롯 한 군 일 군 들 은 농 장 들 에 내 리 가 선 진 영 농 기 계 수 단 과 양 방 법 을 받 아 들 이 는 데 서 영 농 선 단 위 일 군 들 과 무 릎 을 마 зу 하 고 창 조 적 지혜 를 합 처 나 갔 다. 그 조 직 제 좋 은 방 도 들 을 찾

을 수 있 었 다. 과 학 영 화 와 기 계 자 료 들 을 준 비 해 가 지 고 농 장 들 에 나 가 보 께 하 면 서 모 판 에 서 의 보 여 주 기 사 업 을 전 행 하 지 는 것 이 었 다.

농 장 원 들 모 두 가 과 학 농 사 의 주 인 이 되 게 할 때 실 한 모 를 길 러 낼 수 있 다.

이 런 관 점 으 서 군 일 군 들 은 농 장 들 을 막 고 내 리 가 과 학 영 화 보 급 과 보 여 주 기 사 업 등 기 계 수 단 을 현 실 에 맞 게 전 행 하 였 다. 백 번 듣 는 것 보 다 한 번 보 는 것 이 나 닮 고 이 과 정 을 통 하 여 농 장 원 들 은 모 판 관 리 를 주 체 농 밭 의 요 구 대 로 해 나 갈 수 있 는 영 농 기 계 수 단 과 방 법 을 배 우 고 불 리 한 조 건 에 서 도 벼 모 들 을 튼 튼 히 키 워 낼 수 있 게 되 었 다.

온 도 가 떨 어 질 때 박 막 과 나 레 를 리 용 하 여 모 판 은 온 도 를 높 이 으 록 씨앗 이 충 실 하 게 돌 아 나 오 고 한 지 도, 바 람 소 이 기 와 덩 이 토 주 기 등 을 잘 하 여 모 가 헛 자 라 지 않 게 한 것 이 다. 군 일 군 들 의 창 조 적 일 본 세 를 떠 나 서 생 각 할 수 없 다.

이 령 도 논 고 할 때 봄 철 영 농 전 투 를 위 한 작 영 반 에 전 성 이 되 게 잘 하 고 불 리 한 조 건 에 서 도 튼 튼 한 벼 모 를 길 러 내 오 고 이 풀 어 준 군 일 군 들 의 사 업 기 투 은 본 반 을 한 단 하 였 다.

본 사 기 자 정 영 철

## 모내기준비에 역량을 집중하자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 음 과 같 이 지 적 하 시 었 다.

《 농 사 를 잘 지 어 야 인 민 들 의 식 량 문 제, 먹 는 문 제 를 원 만 히 해 결 할 수 있 으 며 강 성 대 국 건 설 을 힘 있 게 밀 고 나 갈 수 있 습 니 다. 》

모 내 기 철 이 하 루 하 루 다 가 오 고 있 다.

농 사 에 서 모 내 기 는 중 요 한 영 농 공 정 이 다. 당 창 건 65 췌 을 맞 는 뜻 깊 은 올 해 에 는 논 벼 농 사 에 서 장 훈 을 부 르 지 면 모 내 기 를 주 체 농 밭 의 요 구 대 로 적 기 에 질 적 으 로 하 여 야 한 다. 그 리 으 도 농 촌 경 리 부 문 에 서 는 모 내 기 를 제 체 에 질 적 으 로 할 수 있 게 만 단 의 준 비 를 갖추 어 야 한 다.

모 내 기 준 비 에 서 무 엇 보 다 중 요 한 것 은 튼 튼 한 벼 모 를 길 러 내 는 것 이 다. 모 내 기 를 주 체 농 밭 의 요 구 대 로 하 는 가 못 하 는 가 하 는 것 은 벼 모 를 튼 튼 히 길 러 내 는 가 못 하 는 가 하 는 것 과 크 게 판 련 된 다. 농 업 부 문 일 군 들 과 농 업 근 로 자 들 은 모 내 기 일 정 체 제 에 맞 게 모 를 낼 수 있 도 록 벼 모 를 실 하 게 키 우 는 데 큰 힘 을 넣 어 야 한 다.

모 판 관 리 공 들 의 책 임 성 과 를 높 여 야 한 다. 각 지 협 동 농 장 의 모 판 관 리 공 들 은 자 기 들 이 지 난 임 무 의 중 요 성 을 깊이 자 각 하 고 모 판 은 도 보 장 과 물 주 기, 덩 이 토 주 기 를 과 학 기 계 수 단 으 로 하 여 줄 대 같 은 벼 모 들 을 길 러 내 야 한 다.

농 기 계 들 의 가 동 륜 을 최 대 한 으 로 높 이 수 있 게 만 단 의 준 비 를 갖추 어 야 한 다. 기 계 로 모 를

내 야 평 당 포 기 수 와 포 기 당 대 수 를 정 확 히 보 장 할 수 있 으 며 일 정 체 제 로 모 내 기 를 내 밀 수 있 다. 협 동 농 장 일 군 들 과 농 업 근 로 자 들 은 자 령 강 생, 간 고 분 투 의 혁 명 정 신 을 높이 발 휘 하 여 모 내 는 기 계 들 의 수 리 정 비 를 질 적 으 로 끝 내 며 예비 부 속 품 들 을 너 뉘 히 장 만 하 여 야 한 다. 각 지 농 기 계 적 영 소 일 군 들 과 기 계 화 초 병 들 은 논 벼 세 치 기 를 모 내 기 에 확 고 히 앞 세 우 기 위 하 여 트랙 토 르 들 의 수 리 정 비 를 말끔 히 하 며 농 물 는 논 벼 정 보 기 계 들 을 너 뉘 히 발 아 오 며 모 내 기 를 적 기 에 질 적 으 로 끝 내 수 있 도 록 적 구 노 령 하 여 야 한 다.

물 론 일 에 서 나 생 파 의 여 부 는 일 군 들 에 게 달 려 주 는 것 이 다. 각 지 농 업 부 문 일 군 들 은 모 내 기 전 투 생 파 가 전 적 으 로 자 기 들 에 게 달 려 주 는 것 을 명 실 하 고 전 투 장 마 다 서 새 로 운 혁 명 적 대 조 의 열 몸 이 세 차 게 일 어 나 도 록 조 직 정 치 사 업 을 전 투 적 으 로 벌 리 어 야 한 다. 일 군 들 은 모 기 로 기, 농 기 계 및 판 수 설 비 수 리 정 비, 중 소 농 기 계 준 비, 영 농 자 재 보 장 등 모 내 기 준 비 정 형 을 구 체 적 으 로 알 아 보 고 제 때 에 필 요 한 대 책 을 세 워 야 한 다.

농 업 부 문 의 모 든 일 군 들 과 근 로 자 들 은 예 국 의 령 정 으 로 모 내 기 준 비 를 빈틈 없 이 하 여 모 내 기 전 투 를 성 과 적 으 로 보 장 함 으 로 해 10 월 의 대 추 수 전 장 에 자 랑 한 로 령 적 성 과 를 안 고 땀 땀 하 게 들 어 서 야 한 다.

## 논갈이를 본격적으로

### 평안북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평 안 북 도 안 의 농 촌 들 에 서 논 갈 이 를 힘 있 게 다 그 치 고 있 다. 당 창 건 65 췌 을 맞 는 뜻 깊 은 올 해 에 중 요 한 가 을 을 안 아 올 들 은 결 의 안 고 떨 쳐 나 신 농 업 근 로 자 들 의 혁 명 적 열 정 에 의 하 여 논 갈 이 실 적 은 부 켜 뛰 어 오 르 고 있 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 음 과 같 이 지 적 하 시 었 다.

《 농 업 부 문 의 일 군 들 과 당 원 들 과 근 로 자 들 은 나 라 의 쌀 먹 을 책 임 진 주 인 다 운 자 각 을 가 지 고 식 량 증 산 을 위 하 여 헌 신 적 으 로 투 쟁 해 나 가 야 합 니 다. 》

당 조 직 의 지 도 밑 에 서, 군 협 동 농 장 정 영 위 원 회 들 에 서 는 트랙 토 르 를 비 롯 한 갈 이 수 단 들 에 대 한 수 리 정 비 작 업 을 미 리 부 터 실 속 이 게 한 데 기 초 하 여 논 갈 이 를 힘 있 게 내 밀 고 하 였 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 음 과 같 이 지 적 하 시 었 다.

《 벼 농 사 에 서 는 모 를 튼 튼 히 키 워 내 는 것 이 무 엇 보 다 중 요 합 니 다. 》

뜻 깊 은 올 해 농 사 를 잘 지 을 볼 강 은 결 의 안 고 신 흥 군 길 병 협 동 농 장 의 일 군 들 과 농 장 원 들 이 모 판 관 리 를 주 체 농 밭 의 요 구 대 로 하 고 있 다. 농 장 일 군 들 은 농 장 원 들 을 들 어 가 벼 모 를 튼 튼 히 키 워 야 알 찬 열 매 를 맺 을 수 있 다 고 하 면 서 모 판

그 리 고 부 속 품 보 장 을 위 한 적 극 적 인 대 책 을 세 우 면 서 기 대 마 다 만 가 등, 만 부 하 를 보 장 하 게 하 였 다.

통 천 군 안 의 협 동 농 장 들 에 서 짧은 기 간 에 논 갈 이 를 와 닥 닥 해 결 제 목 표 를 세 우 고 힘 찬 투 쟁 을 벌 리 실 적 을 올 리 고 있 다. 위 대 한 장 군 님 의 불 뉘 는 령 도 정 책 을 알 께 증 산 생 파 로 빛 내 일 한 마음 안 고 는 갈 이 에 떨 쳐 나 신 신 앙 협 동 농 장 의 트랙 토 르 운 전 수 들 은 한 호 전 진 을 갈 아 오 어 도 기 계 수 단 의 요 구 대 로 깊 이 를 철 저 히 보 장 하 고 있 다.

운 전 군 안 의 협 동 농 장 들 에 서 는 트랙 토 르 를 비 롯 한 갈 이 수 단 들 을 논 갈 이 에 집 중 시 켜 많 은 생 파 를 거 두 고 있 다. 특 히 운 화, 판 해, 보 석 협 동 농 장 의 트랙 토 르 운 전 수 들 은 논 갈 이 에 달 라 붙 어 서 로 승 벼 내 기 로 일

손 을 다 그 치 면 서 귀 밭 이 가 생 기 지 않 도 록 수 인 다 운 기 투 를 높이 발 휘 하 고 있 다.

영 주 군, 동 림 군 안 의 협 동 농 장 들 에 서 는 트랙 토 르 를 비 롯 한 갈 이 수 단 들 에 대 한 수 리 정 비 작 업 을 실 속 이 게 하 도 록 부 속 품 보 장 대 책 을 철 저 히 세 우 고 트랙 토 르 운 전 수 들 이 맡 은 일 에 서 높은 책 임 성 을 발 휘 하 게 하 고 있 다.

태 천 군 안 의 협 동 농 장 들 에 서 는 트랙 토 르 수 리 정 비 를 실 속 이 게 하 면 서 논 갈 이 실 적 을 높 이 고 있 다.

녕 변 군, 파 천 군 안 의 협 동 농 장 들 에 서 도 포 진 별 로, 날 자 별 로 논 갈 이 제 결 을 세 우 고 일 정 대 로 내 밀 고 있 다. 도 에 서 는 논 갈 이 를 힘 있 게 내 밀 면 서 협 동 농 장 들 에 서 물 길 들 을 전 반 으 로 가 서 내 기 하 여 물 이 제 때 에 포 진 에 흘 러 들 게 하 고 있 다.

특 기 파 자 김 기 두



무비루스감자종자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평안남도농경리위원회

해 가 뒤 었 뒤 었 애 국 의 마 음 어 린 포 전 의 지 녁 일 손 을 잡 았 다. 작 영 반 장 의 지 휘 에 따 라 농 장 원 들 은 비 가 내 리 도 다음 날 작 영 에 지 장 이 있 을 것 같 아 미 리 대 책 을 세 우 는 것 이 었 다. 뜻 깊 은 올 해 를 알 께 증 산 으 로 빛 내 일 들 은 결 의 로 가 슴 을 뚫 으 며 모 판 을 떠 나 지 못 하 는 작 영 반 초 급 일 군 들 이 물 도 양 을 정 리 하 고 있 는 것 이 었 다. 그 광

## 기계화추진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 음 과 같 이 지 적 하 시 었 다.

《 농 업 부 문 일 군 들 과 농 장 원 들 은 농 사 를 잘 지 어 나 라 의 식 량 문 제 를 기 어 이 풀 겠 다 는 혁 명 적 각 오 주 인 다 운 자 각 을 가 지 고 더 욱 분 발 하 여 야 합 니 다. 》

논 갈 이 가 시 작 된 다 음 날 아 침 이 었 다. 변 디 스 러 운 불 날 세 조 건 으 하 여 논 갈 이 를 일 정 체 제 로 내 밀 지 못할 가 되 는 곤 히 격 정 하 며 포 진 을 채 워 내 는 안 주 시 운 한 협 동 농 장 의 일 군 은 매 이 르 게 울 리 는 발 동 소 리 에 걸 음 을 멈 추 었 다.

농 장 일 군 은 발 동 소 리 가 울 리 는 제 3 작 영 반 포 전 으 로 다 그 아 갔 다. 언 제 무 러 시 작 하 겠 지 벌써 한 배 이 는 눈 을 끌 어 오

무 의 중 요 성 을 깊이 자 각 하 고 벼 모 들 이 충 아 없 이 실 하 게 자 라 도 록 온 각 정 성 을 다 하 고 있 다. 이 들 은 예 전 된 는 날 세 를 제 때 에 알 아 보 고 벼 모 의 생 속 조 건 에 따 르 는 온 도 와 물 보 증 을 과 학 기 계 수 단 으 로 해 나 고 있 다.

10 월 의 대 추 수 전 장 에 자 랑 한 로 령 적 성 과 를 안 고 들 어 서 는 농 장 일 군 들 과 농 장 원 들 의 뜨 르 는 열 정 으 하 여 모 판 마 다 에 서 는 벼 모 들 이 튼 튼 히 자 라 고 있 다.

본 사 기 자 흥 성 철

## 안주시 연합협동농장에서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 음 과 같 이 지 적 하 시 었 다.

《 농 업 부 문 일 군 들 과 농 장 원 들 은 농 사 를 잘 지 어 나 라 의 식 량 문 제 를 기 어 이 풀 겠 다 는 혁 명 적 각 오 주 인 다 운 자 각 을 가 지 고 더 욱 분 발 하 여 야 합 니 다. 》

논 갈 이 가 시 작 된 다 음 날 아 침 이 었 다. 변 디 스 러 운 불 날 세 조 건 으 하 여 논 갈 이 를 일 정 체 제 로 내 밀 지 못할 가 되 는 곤 히 격 정 하 며 포 진 을 채 워 내 는 안 주 시 운 한 협 동 농 장 의 일 군 은 매 이 르 게 울 리 는 발 동 소 리 에 걸 음 을 멈 추 었 다.

농 장 일 군 은 발 동 소 리 가 울 리 는 제 3 작 영 반 포 전 으 로 다 그 아 갔 다. 언 제 무 러 시 작 하 겠 지 벌써 한 배 이 는 눈 을 끌 어 오

무 의 중 요 성 을 깊이 자 각 하 고 벼 모 들 이 충 아 없 이 실 하 게 자 라 도 록 온 각 정 성 을 다 하 고 있 다. 이 들 은 예 전 된 는 날 세 를 제 때 에 알 아 보 고 벼 모 의 생 속 조 건 에 따 르 는 온 도 와 물 보 증 을 과 학 기 계 수 단 으 로 해 나 고 있 다.

10 월 의 대 추 수 전 장 에 자 랑 한 로 령 적 성 과 를 안 고 들 어 서 는 농 장 일 군 들 과 농 장 원 들 의 뜨 르 는 열 정 으 하 여 모 판 마 다 에 서 는 벼 모 들 이 튼 튼 히 자 라 고 있 다.

본 사 기 자 흥 성 철

## 《희천속도》에 발걸음을 맞추며 대중운동의 성과를 안아온 경쟁바람

### 송전선 건설 사업소에서

희 천 속 도 소 건 설 이 힘 있 게 추 진 되 고 있 는 요 췌 송 전 선 건 설 사 업 소 의 로 동 계 급 이 날 에 날 마 다 새 로 운 혁 신 을 장 조 하 고 있 다. 이 곳 일 군 들 과 로 동 계 급 은 열 마 진 희 천 발 전 소 송 전 선 철 락 기 초 공 사 에 필 요 한 방 사 한 량 의 산 형 강 들 을 제 각 각 에 수 령 이 나 왔 고 연 신, 가 공 설 비 들 의 만 가 동 을 보 수 정 비 하 여 만 가 동 을 보 장 할 수 있 는 혁 신 적 인 대 책 이 세 워 졌 다.

그 런 데 도 급 로 의 능 령 이 제 한 되 어 있 는 것 이 문 제 였 다. 도 급 로 의 능 령 을 결 정 적 으 로 높 여 야 하 였 으 나 기 업 이 촉 박 한 조 건 에 서 능 령 확 장 을 위 한 기 계 수 단 을 전 행 할 여 구 가 없 었 다. 이 런 때 기 사 장 김 봉 희 동 부 가 새 로 운 안 을 내 놓 았 다. 그 는 생 산 선 제품 을 도 급 로 에 넘 기 전 에 가 려 여 도 급 시 간 을 줄 이 지 는 것 이 었 다.

그 의 착 상 은 모 두 의 지 지 를 받 았 다. 기 계 수 단 과 철 락 관 직 장 의 로 동 자, 기 계 수 단 이 예 로 의 제 작 설 치 에 떨 쳐 나 갔 다. 그 들 은 모 든 것 이 부 켜 주 고 이 러 운 조 건 에 서 내 부 에 비 를 적 구 람 주 원 하 고 지혜 를 합 처 짧은 기 간 에 예 로 를 일 떠 세 워 나 갔 다. 결 구 도 급 시 간 을 훨씬 줄 이 면 서 도 지 난 시 기 보 다 제 품 생 산 을 1.5 배 이 상 높 이 수 있 게 되 었 다.

생 산 기 계 를 앞 당 기 수 있 는 결 정 결 과 과 구 를 열 어 제 진 성 과 에 토 대 하 여 철 락 관 직 장 의 로 동 자 들 은 생 형 제 작 을 위 한 총 동 령 격 을 드 세 차 게 벌 리

는 사 회 주의 경 쟁 운 동 을 대 중 의 정 신 령 방 동 의 중 요 한 열 의 의 한 보 로 찾 아 주 게 되 었 다. 말 하 지 만 작 영 반 장 이 제 기 가 라 오 르 고 사 회 주의 경 쟁 바 람 이 힘 차 게 불 고 있 다.

세 록 의 붉 은 기 발 놀 이 증 산 경 쟁 이 힘 있 게 벌 리 지 는 속 에 가 소 제 직 장 에 서 생 산 공 정 의 기 계 수 단 과 컴 퓨 터 화 를 빛 나 게 실 현 하 고 생 산 건 들 을 현 대 적 이 가 나 게 일 떠 세 는 자 랑 한 생 파 를 이 룬 하 였 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 음 과 같 이 지 적 하 시 었 다.

《 당 조 직 들 은 대 조 직 의 불 길 을 세 차 게 지 켜 나 가 는 데 목 표 를 바 크 고 3 대 혁 명 투쟁 기 계 수 단 을 실 속 이 게 벌 리 나 감 으 로 해 사 상, 기 계, 문 화 의 3 대 혁 명 기 계, 세 록 의 붉 은 기 가 총 진 군 대 으 에 더 욱 힘 차 게 나 투 기 도 록 하 여 야 합 니 다. 》

직 장 에 서 생 산 공 정 의 기 계 수 단 을 위 한 전 투 가 벌 어 졌 을 때 는 내 세 운 목 표 는 방 대 한 데 조 건 은 여 전 히 어 려 워 다. 하 지 만 기 계 수 단 사 업 은 결 의 목 표 에 반 영 한 대 로 최 단 기 간 내 에 전 행 하 여 야 할 전 투 과 임 이 었 다.

모 든 기 계 수 단 과 종 영 원 들 은 그 들 의 모 범 을 따 라 기 계 수 단 안 을 내 놓 기 위 해 끝 없 이 사 색 하 고 투 쟁 하 였 다.

직 장 에 서 는 대 중 적 기 계 수 단

이 모 판 관 리 를 잘 해 나 가 고 있 다. 리 호 근, 김 철 운 동 무 를 비 롯 한 초 급 일 군 들 은 모 판 관 리 서 제 기 가 라 오 르 고 사 회 주의 경 쟁 바 람 이 힘 차 게 불 고 있 다.

세 록 의 붉 은 기 발 놀 이 증 산 경 쟁 이 힘 있 게 벌 리 지 는 속 에 가 소 제 직 장 에 서 생 산 공 정 의 기 계 수 단 과 컴 퓨 터 화 를 빛 나 게 실 현 하 고 생 산 건 들 을 현 대 적 이 가 나 게 일 떠 세 는 자 랑 한 생 파 를 이 룬 하 였 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 음 과 같 이 지 적 하 시 었 다.

《 당 조 직 들 은 대 조 직 의 불 길 을 세 차 게 지 켜 나 가 는 데 목 표 를 바 크 고 3 대 혁 명 투쟁 기 계 수 단 을 실 속 이 게 벌 리 나 감 으 로 해 사 상, 기 계, 문 화 의 3 대 혁 명 기 계, 세 록 의 붉 은 기 가 총 진 군 대 으 에 더 욱 힘 차 게 나 투 기 도 록 하 여 야 합 니 다. 》

직 장 에 서 생 산 공 정 의 기 계 수 단 을 위 한 전 투 가 벌 어 졌 을 때 는 내 세 운 목 표 는 방 대 한 데 조 건 은 여 전 히 어 려 워 다. 하 지 만 기 계 수 단 사 업 은 결 의 목 표 에 반 영 한 대 로 최 단 기 간 내 에 전 행 하 여 야 할 전 투 과 임 이 었 다.

모 든 기 계 수 단 과 종 영 원 들 은 그 들 의 모 범 을 따 라 기 계 수 단 안 을 내 놓 기 위 해 끝 없 이 사 색 하 고 투 쟁 하 였 다.

직 장 에 서 는 대 중 적 기 계 수 단

제 각 각 에 수 령 이 나 왔 고 연 신, 가 공 설 비 들 의 만 가 동 을 보 수 정 비 하 여 만 가 동 을 보 장 할 수 있 는 혁 신 적 인 대 책 이 세 워 졌 다.

그 런 데 도 급 로 의 능 령 이 제 한 되 어 있 는 것 이 문 제 였 다. 도 급 로 의 능 령 을 결 정 적 으 로 높 여 야 하 였 으 나 기 업 이 촉 박 한 조 건 에 서 능 령 확 장 을 위 한 기 계 수 단 을 전 행 할 여 구 가 없 었 다. 이 런 때 기 사 장 김 봉 희 동 부 가 새 로 운 안 을 내 놓 았 다. 그 는 생 산 선 제품 을 도 급 로 에 넘 기 전 에 가 려 여 도 급 시 간 을 줄 이 지 는 것 이 었 다.

그 의 착 상 은 모 두 의 지 지 를 받 았 다. 기 계 수 단 과 철 락 관 직 장 의 로 동 자, 기 계 수 단 이 예 로 의 제 작 설 치 에 떨 쳐 나 갔 다. 그 들 은 모 든 것 이 부 켜 주 고 이 러 운 조 건 에 서 내 부 에 비 를 적 구 람 주 원 하 고 지혜 를 합 처 짧은 기 간 에 예 로 를 일 떠 세 워 나 갔 다. 결 구 도 급 시 간 을 훨씬 줄 이 면 서 도 지 난 시 기 보 다 제 품 생 산 을 1.5 배 이 상 높 이 수 있 게 되 었 다.

생 산 기 계 를 앞 당 기 수 있 는 결 정 결 과 과 구 를 열 어 제 진 성 과 에 토 대 하 여 철 락 관 직 장 의 로 동 자 들 은 생 형 제 작 을 위 한 총 동 령 격 을 드 세 차 게 벌 리

제 각 각 에 수 령 이 나 왔 고 연 신, 가 공 설 비 들 의 만 가 동 을 보 수 정 비 하 여 만 가 동 을 보 장 할 수 있 는 혁 신 적 인 대 책 이 세 워 졌 다.

그 런 데 도 급 로 의 능 령 이 제 한 되 어 있 는 것 이 문 제 였 다. 도 급 로 의 능 령 을 결 정 적 으 로 높 여 야 하 였 으 나 기 업 이 촉 박 한 조 건 에 서 능 령 확 장 을 위 한 기 계 수 단 을 전 행 할 여 구 가 없 었 다. 이 런 때 기 사 장 김 봉 희 동 부 가 새 로 운 안 을 내 놓 았 다. 그 는 생 산 선 제품 을 도 급 로 에 넘 기 전 에 가 려 여 도 급 시 간 을 줄 이 지 는 것 이 었 다.

그 의 착 상 은 모 두 의 지 지 를 받 았 다. 기 계 수 단 과 철 락 관 직 장 의 로 동 자, 기 계 수 단 이 예 로 의 제 작 설 치 에 떨 쳐 나 갔 다. 그 들 은 모 든 것 이 부 켜 주 고 이 러 운 조 건 에 서 내 부 에 비 를 적 구 람 주 원 하 고 지혜 를 합 처 짧은 기 간 에 예 로 를 일 떠 세 워 나 갔 다. 결 구 도 급 시 간 을 훨씬 줄 이 면 서 도 지 난 시 기 보 다 제 품 생 산 을 1.5 배 이 상 높 이 수 있 게 되 었 다.

생 산 기 계 를 앞 당 기 수 있 는 결 정 결 과 과 구 를 열 어 제 진 성 과 에 토 대 하 여 철 락 관 직 장 의 로 동 자 들 은 생 형 제 작 을 위 한 총 동 령 격 을 드 세 차 게 벌 리

## 2. 8비탈련합기업소 가소제직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현 대 적 인 비 탈 령 공 장 을 일 떠 세 워 선 조 건 의 위 대 한 날 론 기 계 를 장 조 한 2.8 비 탈 령 령 합 기 계 수 단 의 전 투 장 마 다 서 제 기 가 라 오 르 고 사 회 주의 경 쟁 바 람 이 힘 차 게 불 고 있 다.

세 록 의 붉 은 기 발 놀 이 증 산 경 쟁 이 힘 있 게 벌 리 지 는 속 에 가 소 제 직 장 에 서 생 산 공 정 의 기 계 수 단 과 컴 퓨 터 화 를 빛 나 게 실 현 하 고 생 산 건 들 을 현 대 적 이 가 나 게 일 떠 세 는 자 랑 한 생 파 를 이 룬 하 였 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다 음 과 같 이 지 적 하 시 었 다.

《 당 조 직 들 은 대 조 직 의 불 길 을 세 차 게 지 켜 나 가 는 데 목 표 를 바 크 고 3 대 혁 명 투쟁 기 계 수 단 을 실 속 이 게 벌 리 나 감 으 로 해 사 상, 기 계, 문 화 의 3 대 혁 명 기 계, 세 록 의 붉 은 기 가 총 진 군 대 으 에 더 욱 힘 차 게 나 투 기 도 록 하 여 야 합 니 다. 》

직 장 에 서 생 산 공 정 의 기 계 수 단 을 위 한 전 투 가 벌 어 졌 을 때 는 내 세 운 목 표 는 방 대 한 데 조 건 은 여 전 히 어 려 워 다. 하 지 만 기 계 수 단 사 업 은 결 의 목 표 에 반 영 한 대 로 최 단 기 간 내 에 전 행 하 여 야 할 전 투 과 임 이 었 다.

모 든 기 계 수 단 과 종 영 원 들 은 그 들 의 모 범 을 따 라 기 계 수 단 안 을 내 놓 기 위 해 끝 없 이 사 색 하 고 투 쟁 하 였 다.

직 장 에 서 는 대 중 적 기 계 수 단

## 사업에서

제 각 각 에 수 령 이 나 왔 고 연 신, 가 공 설 비 들 의 만 가 동 을 보 수 정 비 하 여 만 가 동 을 보 장 할 수 있 는 혁 신 적 인 대 책 이 세 워 졌 다.

그 런 데 도 급 로 의 능 령 이 제 한 되 어 있 는 것 이 문 제 였 다. 도 급 로 의 능 령 을 결 정 적 으 로 높 여 야 하 였 으 나 기 업 이 촉 박 한 조 건 에 서 능 령 확 장 을 위 한 기 계 수 단 을 전 행 할 여 구 가 없 었 다. 이 런 때 기 사 장 김 봉 희 동 부 가 새 로 운 안 을 내 놓 았 다. 그 는 생 산 선 제품 을 도 급 로 에 넘 기 전 에 가 려 여 도 급 시 간 을 줄 이 지 는 것 이 었 다.

그 의 착 상 은 모 두 의 지 지 를 받 았 다. 기 계 수 단 과 철 락 관 직 장 의 로 동 자, 기 계 수 단 이 예 로 의 제 작 설 치 에 떨 쳐 나 갔 다. 그 들 은 모 든 것 이 부 켜 주 고 이 러 운 조 건 에 서 내 부 에 비 를 적 구 람 주 원 하 고 지혜 를 합 처 짧은 기 간 에 예 로 를 일 떠 세 워 나 갔 다. 결 구 도 급 시 간 을 훨씬 줄 이 면 서 도 지 난 시 기 보 다 제 품 생 산 을 1.5 배 이 상 높 이 수 있 게 되 었 다.

생 산 기 계 를 앞 당 기 수 있 는 결 정 결 과 과 구 를 열 어 제 진 성 과 에 토 대 하 여 철 락 관 직 장 의 로 동 자 들 은 생 형 제 작 을 위 한 총 동 령 격 을 드 세 차 게 벌 리

# 선군조선의 자랑 세계컬지의 교육과학전당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이 최첨단수준의 교육과학정보봉사 중심기지로 꾸러졌다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육과학사업의 최첨단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는 최신식전자도서관을 통상남산마루에 훌륭히 꾸러져 김일성종합대학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켰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안겨주신 은정어린 선물인 전자도서관은 대규모의 자료기지와 최첨단정보기술체계에 의거하여 교육과학사업과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종합적인 교육과학정보봉사 중심기지가 되었다.

정보통신망과 기능, 수단들을 완벽하게 갖춘 전자도서관이 건설되어 김일성종합대학은 나라의 교육과학사업을 세 세기에 맞게 강화발전시키고 최첨단돌격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거점으로 변모하였다.

전자도서관이 일떠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존하심으로 자랑높은 대학을 세계 제일의 명문대학으로 꾸리고 이를 본보기로 주체교육과학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최첨단수준에 올려세워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제대국을 건설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구상이 빛나게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신 대로 통상남산지구를 대학촌으로 더 훌륭히 꾸리고 현대적인 교육시설들과 설비

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종합대학을 세계컬지의 대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화발전은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세울것을 발기하시고 도서관이 새 세기의 본보기,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되도록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강력한 설계집단과 정보기술력량, 힘있는 건설부대를 보내주시고 몸소 설계안도 보아주시며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 가장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이 일떠섬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보내주신 «자기 땅에 밭을 불이고 늪은 세계를 보라!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적 믿음직한 젊은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리로 보게 하라!»는 뜻깊은 친필서한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 온 나라 지식인들과 인민들에게 세계를 굽어보는 안목과 배짱, 비상한 애국열의와 창조정신을 안겨주고 대학의 사명과 역할을 천명하신 과학기술강국, 강성대국건설의 강령적 지침으로 되었다.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사적이 깃들여있고 대학의 상징건물인 본교사를 더욱 빛내이고 선군시대의 만경짜리 창조물로 더 한층 건설된 전자도서관은 최첨단정보

봉사과 과학기술연구의 종합적인 대전당으로서 김일성종합대학의 불멸의 력사와 휘황한 미래, 선군조선의 지적잠재력을 힘있게 파시하고있다.

1만 5 000여㎡의 연건축면적에 5 층으로 된 전자도서관의 자료기지도와 봉사능력은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

도서관자료기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자료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문명의 도서, 잡지, 논문들,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기술도서들과 잡지, 초록, 특허자료 등 강성대국건설에 필요한 전국적, 세계적범위의 방대한 자료들이 구축되어있다.

또한 과학영화, 과학기술특집을 비롯한 문화상자료들과 프로그램에 높은 수준에서 구비되어있어 독자들에게 첨단과학기술의 무한대한 세계를 열어주었고, 자료들을 전자도서, 동화상편집물로 전환시키는 각종 최신식수화설비들로 하여 도서관의 자료기지는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 식으로 형성된 우월한 컴퓨터망은 교육과학사업과 학과학습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다.

전자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안의 학부들과 연구소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을 광대역통신망으로 연결한 정보고속도로가 형성되어 컴퓨터망을 통해 단번에 수많은 독자들이 방대한 량의 자료들을 신속정확

히 열람할 수 있게 된것은 도서관의 높은 전능능력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는 종합적이면서 전문화된 봉사를 할 수 있는 학술적 및 물질기술적토대가 구축되어있다.

100여종에 수만대의 최신식전자설비들이 여러개의 열람홀들과 정보봉사홀, 다매체열람실, 종합강의실, 학술교류실 등 수십개 방들에 전개되어 정보봉사기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고있다.

우리 식의 독특한 전자도서관봉사와 편리운영체제도 주목적점, 도서 및 자료열람, 강의는 물론 독자편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운영을 과학화, 정보화할 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전자도서관에는 로교수들의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의 편리를 원만히 보장해주는 열람실이 특별히 마련되었다.

전자도서관은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최상의 수준에서 할 수 있게 꾸러졌으므로 하여 세계적인 도서관으로서의 면모가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다매체열람실과 학술교류실을 비롯한 방들에는 최신집체음향체계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 과학교육기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신설비들, 무선망체계가 설치되어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과학토론, 논문발표 등을 가장 편리하고 리상적인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200석 종합강의실은 후면투영

기, 대형투영막 등 각이한 전자설비들을 갖추고 두개의 화면으로 동시에 학술교류와 과학연구자료를 진보적으로 집중고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원격강의실이 꾸러져 혁신적인 교육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밝은 전망이 열렸다.

최신설비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원격강의실에서 강의 전과정이 동화상전집물로 제작되고 정보고속도로를 통하여 대학의 모든 학부들뿐 아니라 온 나라의 교육, 과학연구단위들에서도 원격강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격교육체제가 마련됨으로써 전국각지의 독자들은 컴퓨터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실시간으로 또는 특화물류로 강의의 받으며 필요한 학과목들에 대한 학습을 자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리상적으로 꾸러진 전자도서관은 혁명인제양성의 중심기지가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비하고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전민교육의 질적수준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은 그 성격과 사명, 주체의 건축미학적으로 맞게 리상적인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200석 종합강의실은 후면투영

여있는 중앙홀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홀과 방들이 대칭으로 배치되고 원형기둥과 벽면장식, 조명을 비롯하여 모든 건축공간과 요소들이 특색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꾸러졌다.

전자도서관과 과학도서관을 연결하는 외랑이 건설되고 모든 방들에 사계절 가장 적합한 실내온도를 보장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최상급으로 건설함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피하는 심장에 반어안은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은 결사의 투지와 혁명적기백을 안고 삼복의 무더위와 수십년래의 강추위속에서도 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9개월만에 도서관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자도서관이 으름으로 꾸러졌으므로 민족중부양성의 중추기지가 김일성종합대학은 주체의 선군위업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제들을 더 훌륭히 키워내는 세계컬지의 대학으로 만방에 자랑떨치게 되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에 우뚝 올려세우려는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이 빛나고 구현된 선군조선의 만년대부인 전자도서관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명과 은덕을 길이 전하며 온 나라의 정보화실현을 적극 추동하고 주체교육과학발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의 앞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강고히 바친 혁명선열들과 영웅전사들, 유병부령의 애국자리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의 빛나는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우리 세대의 값높고 보람찬 삶이 있는것입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께서 각종 수령에 대한 투철한 충실성과 승고한 애국정신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이바지하고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을 비롯한 조국조각돌을 훌륭히 쌓아올리는 소행들이 끊임없이 꽃피고나고있다.

그러한 소행의 주인공들 가운데는 33년간 한직종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혁명의 수도 평양과 전국각지에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서 빛나는 로적취위훈을 세웠을뿐 아니라 나라의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평양철도리보공로동자 유영숙동무도 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철도에서 집합수송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평양철도리보공장에 집단단원하였다.

유영숙동무는 그후 개선문건설에 참가하여 혁신자의 영예를 떨치였을뿐 아니라 주체사상당, 시계감동 등 기념비적창조물건설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는 또한 객차생산과 철도전기화공사, 철도공정건설 등 철도운수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한 많은 전투들에 적극 참가하여 로적취위훈을 세웠다.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여러 대상의 기념비적창조물건설에 참가하

여 맡은 과업을 원만히 보장한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철도보상선과 수리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집단과 동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참된 애국자로서는 만경대구역 당상1동에서 살고있는 제대군인이며 공화국영웅인 라히수동무와 최진시 같은동지들보다 상고있는 리상도, 합정남, 최호진동무들도 있다.

지난 기간 조선인민내무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할 각오로 높이 나라의 중요성업건설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우고 공화국영웅훈장을 받은 라히수동무는 최첨발전소건설전투가 시작되자 군사복무시절의 배낭을 다시 메고 스

로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최첨발전소물질공공사업에 뛰어들어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열람기능이 높은 착암수, 단야공들을 많이 키워왔으며 공사를 다그치고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조국의 부흥에 한몸을 내던 조국보위시절의 그 자세로 최첨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온 리상도, 합정남, 최호진동무는 역시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수장함을 흘리며 발전소건설을 앞장섰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강고히 바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공업경영학부 교원 김일성동무와 박사학위생 김철민동무는 나라의 철도생산에 적극 이바지할 각오로 다 화해체철원합기업소에 달려나가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도입하였을뿐 아니라 성의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함으

로써 철강생산에 펼쳐나선 황철로동계급을 힘있게 고무해 주었다.

이밖에 보통강구역도시시설관리소 로동자 차영희, 구정세멘트공장 작업반장 김순실, 운산군산림경호소 풍양리산림감독원 원만성, 중앙군 인화합동농장 트랙터보수전수 최숙순, 피현군 농민리 김관학, 구양군 통동로동자 전은학의 18명, 립업성 산하단위 부원 홍인순, 강령군관개관리소 로동자 최영일, 의화과학원 산업의학연구소 송민섭소 로동자 안현실, 개천시 탐진동에 사는 박현열, 최희선 같은동지들은 리우영숙동무를 비롯하여 각지의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성실히 일하거나 최첨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투장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고상한 자라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애국정신을 뜨겁게 보여 주었다.

본사기자

다. 러던에 꾸러진 튼튼한 공무기지에서 우리는 기대들의 동음은 돌격대원들의 기세를 한층 높여 주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돌격대원들은 붉은 기복에 자기들의 마음을 비추어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용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한몸마치 걸사관할 불같은 맹세를 가다듬었다.

붉은기를 바라보면 힘과 열정이 저도모르게 솟아올랐다. 돌격대원들은 힘찬 산중턱을 뛰어넘어 여러가지 편의시설, 후방기지를 갖춘 속도를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자기들의 땅이 스민 그 삶의 보금자리를 돌격대원들은 «항일유격대식 병설»이라고 자랑스럽게 불렀다.

오늘도 붉은기는 세계에 휘날리며 러던의 돌격대원들을 더 큰 위훈으로 부르르고있다.

본사기자

회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의 숙소와 전투현장 그 어디에서나 세계적 휘날리는 붉은기를 볼 수 있다. 그 기발은 위대한 장군님의 용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한몸마치 걸사관할하려는 돌격대원들의 맹세와 신념, 생활과 투쟁의 상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담이 결실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담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담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이 회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것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나 미치지 않은 깊은 산골짜기 같아지른 듯 높이 솟은 벼랑들이었다.

회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의 숙소와 전투현장 그 어디에서나 세계적 휘날리는 붉은기를 볼 수 있다. 그 기발은 위대한 장군님의 용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한몸마치 걸사관할하려는 돌격대원들의 맹세와 신념, 생활과 투쟁의 상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담이 결실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담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담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이 회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것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나 미치지 않은 깊은 산골짜기 같아지른 듯 높이 솟은 벼랑들이었다.

회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의 숙소와 전투현장 그 어디에서나 세계적 휘날리는 붉은기를 볼 수 있다. 그 기발은 위대한 장군님의 용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한몸마치 걸사관할하려는 돌격대원들의 맹세와 신념, 생활과 투쟁의 상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담이 결실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담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담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이 회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것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나 미치지 않은 깊은 산골짜기 같아지른 듯 높이 솟은 벼랑들이었다.

회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의 숙소와 전투현장 그 어디에서나 세계적 휘날리는 붉은기를 볼 수 있다. 그 기발은 위대한 장군님의 용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한몸마치 걸사관할하려는 돌격대원들의 맹세와 신념, 생활과 투쟁의 상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담이 결실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담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담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이 회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것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나 미치지 않은 깊은 산골짜기 같아지른 듯 높이 솟은 벼랑들이었다.

회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의 숙소와 전투현장 그 어디에서나 세계적 휘날리는 붉은기를 볼 수 있다. 그 기발은 위대한 장군님의 용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한몸마치 걸사관할하려는 돌격대원들의 맹세와 신념, 생활과 투쟁의 상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담이 결실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담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담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이 회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것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나 미치지 않은 깊은 산골짜기 같아지른 듯 높이 솟은 벼랑들이었다.

회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의 숙소와 전투현장 그 어디에서나 세계적 휘날리는 붉은기를 볼 수 있다. 그 기발은 위대한 장군님의 용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한몸마치 걸사관할하려는 돌격대원들의 맹세와 신념, 생활과 투쟁의 상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담이 결실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담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담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러던 돌격대원들이 회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것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나 미치지 않은 깊은 산골짜기 같아지른 듯 높이 솟은 벼랑들이었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중국에서 진행**

중국 당에서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가 23일과 24일에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담아 활짝 피어난 김일성화 김정일화로 황홀경을 이루고 있었다.

로칭현철선유한공사, 단둥순출입공사, 단둥유봉순출입공사, 단둥화중무역공사, 단둥신통물류유한공사들 비롯하여 중국의 수많은 공사의 인사를, 각계층 중공과 재중동포들 그리고 중국에 체류하고있는 미국, 네델란드, 로씨야, 영국 등 여러 나라 손님들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세계적인 명화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기쁨을

피력하면서 꽃바다를 이룬 전시회장에 오묘맹연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절세의 위인들의 업적을 칭송하여 활짝 핀 태양의 꽃, 불멸의 꽃들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김일성화 김정일화는 정말 독특한 꽃이다. 꽃들이 웃으며 황홀하다고 격찬하였다.

전공부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방영이 28일 평안신문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훌륭히 꾸러진 이곳에서 우리 녀성들과 갖난히 그들이 대한 로보부사기 원만히 보장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종합전당실, 치료실, 입원실 등을 돌아보았다.

총국장 방영은 또한 주체사상과 황해북도 중화군 봉산리 인민병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적십자 및 적반월 상설위원회 위원장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마찌모 바라 적십자 및 적반월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방영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이천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혁명의 집에 깃들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들

어 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위원장 방영은 또한 주체사상과 당창건기념탑, 혁명문화전시관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 진행**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歳, 영웅적조선인민군 장군 78歳에 즈음하여 꾸마, 로씨야, 도이쉴란드, 핀란드,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가 7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 기념 꾸마준비위원회, 꾸마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꾸마정보과 학생대학, 로씨야 스프로이마 인포그라피사, 도이쉴란드 베를린차량유한책임회사, 테이스트영화사, 핀란드조선협회, 말레이시아 씨미트레이회사, 라오스 조선석회사, 싱가포르 세나트선 및 무역사신유한공사, 남아

프리카아프리카인종대회 프토티아시 마홀림발도르피치부, 나이지리아 에누주에서 있는 하디스 드로메다스회사의 인사들과 공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 «강철의 대오 조선인민군», «개신문»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에서는 발원들이 있었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적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라고 강조하고 조선은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들을 높이 받들고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말레이시아 씨미트레이회사는 영화를 보고 조선이 어떻게 정치군사강국을 될수 있었으며 미국이 왜 조선을 감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여러곳 참관**

전공부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방영이 28일 평안신문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훌륭히 꾸러진 이곳에서 우리 녀성들과 갖난히 그들이 대한 로보부사기 원만히 보장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종합전당실, 치료실, 입원실 등을 돌아보았다.

총국장 방영은 또한 주체사상과 황해북도 중화군 봉산리 인민병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여러곳 참관**

전공부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방영이 28일 평안신문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훌륭히 꾸러진 이곳에서 우리 녀성들과 갖난히 그들이 대한 로보부사기 원만히 보장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종합전당실, 치료실, 입원실 등을 돌아보았다.

총국장 방영은 또한 주체사상과 황해북도 중화군 봉산리 인민병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여러곳 참관**

전공부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방영이 28일 평안신문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훌륭히 꾸러진 이곳에서 우리 녀성들과 갖난히 그들이 대한 로보부사기 원만히 보장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종합전당실, 치료실, 입원실 등을 돌아보았다.

총국장 방영은 또한 주체사상과 황해북도 중화군 봉산리 인민병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여러곳 참관**

전공부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방영이 28일 평안신문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훌륭히 꾸러진 이곳에서 우리 녀성들과 갖난히 그들이 대한 로보부사기 원만히 보장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종합전당실, 치료실, 입원실 등을 돌아보았다.

총국장 방영은 또한 주체사상과 황해북도 중화군 봉산리 인민병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여러곳 참관**

전공부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방영이 28일 평안신문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훌륭히 꾸러진 이곳에서 우리 녀성들과 갖난히 그들이 대한 로보부사기 원만히 보장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종합전당실, 치료실, 입원실 등을 돌아보았다.

총국장 방영은 또한 주체사상과 황해북도 중화군 봉산리 인민병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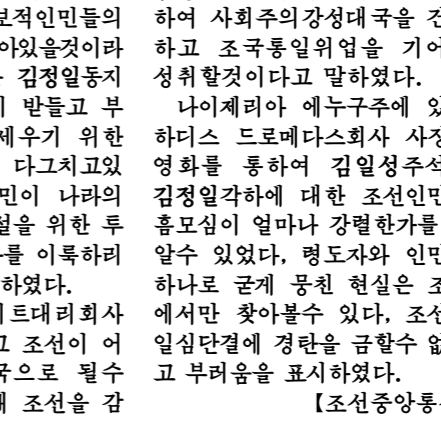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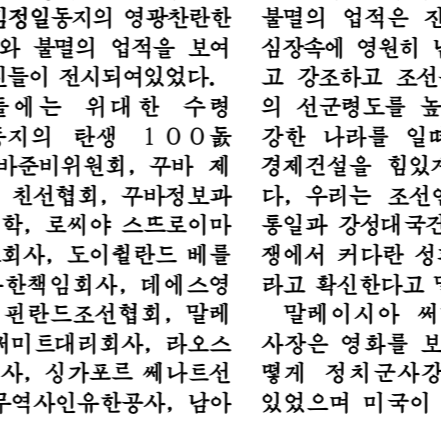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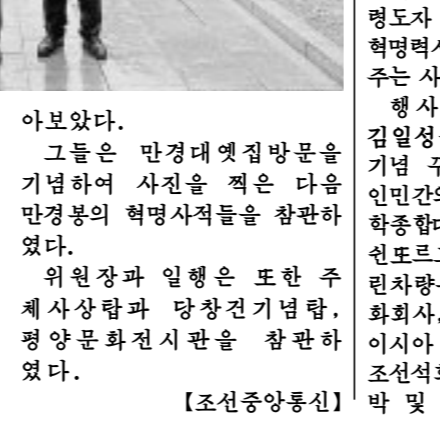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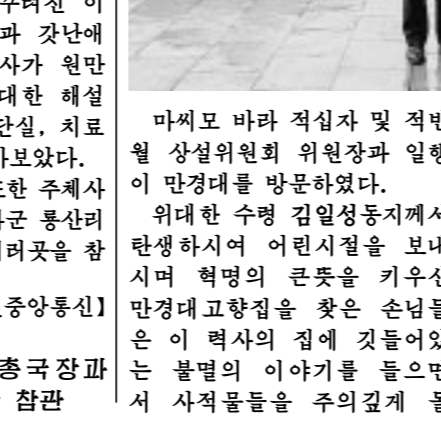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여러곳 참관**

전공부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방영이 28일 평안신문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훌륭히 꾸러진 이곳에서 우리 녀성들과 갖난히 그들이 대한 로보부사기 원만히 보장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종합전당실, 치료실, 입원실 등을 돌아보았다.

총국장 방영은 또한 주체사상과 황해북도 중화군 봉산리 인민병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령장을 모신 조선인민군은 백전백승할것이다

## 뜻깊은 4월의 명절들에 즈음하여

### 여러 나라에서 행사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歳,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歳에 즈음하여 중국에서는 김정일화전시회,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 로니아, 벨기에, 단마르크에서는 집회, 사진전시회,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불멸의 꽃 김정일화,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이 깃들여있는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중국 심양비행선자식문화실비행사, 심양시 문화, 방송, 신문 출판국, 심양시 민족사무원위원회,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로니아공동준비위원회, 로니아사회주의동맹당, 근로자협회, 로니아조선친선협회,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벨기에조선준비위원회, 벨기에공산주의자동맹, 벨기에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마르크준비위원회의 인사들과 중견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로니아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웅적혁명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자유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

로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를 받고 계시는 위인중의 위인이다.

오늘 사회주의 조선은 김일성동지의 선군명도따라 자주의 한길로 뜻뜻이 전진하고 있다.

미래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으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진인 지와 반대성을 표시한다.

벨기에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출리시는 령장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진인 지와 반대성을 표시한다.

벨기에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출리시는 령장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진인 지와 반대성을 표시한다.

벨기에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출리시는 령장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진인 지와 반대성을 표시한다.

벨기에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출리시는 령장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진인 지와 반대성을 표시한다.

벨기에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출리시는 령장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진인 지와 반대성을 표시한다.

벨기에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출리시는 령장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진인 지와 반대성을 표시한다.

벨기에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출리시는 령장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진인 지와 반대성을 표시한다.

벨기에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출리시는 령장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진인 지와 반대성을 표시한다.

벨기에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출리시는 령장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 인간적 매력에 탄복하여

나는 수많은 나라 국 가수반들을 만나보았다. 하지만 내가 만나뵈자마자 그처럼 인차 의사가 통하고 친근감을 느낀분은 오직 김일성주석동지뿐이었다.

세계에는 김일성동지와 같은 정치가가 없다.

1993년 4월 9일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셨다.

이제께서는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고계신다.

도이쉴란트신문 《로테 파네》 4월호는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을 그리워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원위전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전민적무상치료제와 무로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세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도록 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호모하고있는 데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민중공포신문 《라브니르》 9월호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필승의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됨에 우리 인민군대가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자라나는데 대해 그리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 뜻깊은 오찬회장에서

히 들어와 우리 수령님께 귀속말로 무엇인가 아뢰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음베트로일행에 대해 구경하러 오셨다고 하시며 그와 친지한 담화를 나누고 싶었다. 수령님께서께서는 그를 위해 오찬까지 마련 해주셨다.

화목한 한가정이니 다를 바 없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오찬회가 진행되고있을 때 한 인원이 조용

### 당건설의 고귀한 지침

4월달,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건설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판자니아혁명당대표단을 만나주시었다.

당시 아프리카에 돌아와 치고있던 《다당제》의 광풍을 물리치고 공산주의를 공고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던 판자니아혁명당의 실정을 잘지나고자 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그들에게 당건설방향과 당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생산물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나라의 석탄매장량은 187억 1000만에 달한다.

남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요한네스부르그에 있는 국제비행장확장공사에 완공되었다.

중공식이 20일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됨에 현지에서 있었다.

확장공사는 월드컴퓨터대회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한다.

공사를 통해 비행장의 연간 리객 취급능력은 28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올해에 2억 7000만명의 석탄을

### 여러 나라들 협조

유관단과 이란이 20일 원 유공업부문에 초상 협조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이란대통령의 유관단방문과정에 이루어졌다

무지막지한 강패 행위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행위에 계속 매여달리고 있다.

22일 이스라엘군은 베들레헴시근처에서 《안정정책》건설을 반대하여 평화적집회를 벌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마구

### 총기류범죠평안

미국에서 최근 총기류범죠평안이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텍사스주에서 22살 청년이 상점과 식당에 뛰어들어 사람들한테 마구 총질을 하여 17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다.

고대무기를 발굴

에칠트르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까리하르에서 380여개의 구리돈을 발굴하였다.

계량 무게가 320인 구리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이 유물의 발굴은 당시 역사와 사회경제생활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고 한다.

### 주제 99

미국에서 최근 총기류범죠평안이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텍사스주에서 22살 청년이 상점과 식당에 뛰어들어 사람들한테 마구 총질을 하여 17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다.

고대무기를 발굴

에칠트르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까리하르에서 380여개의 구리돈을 발굴하였다.

계량 무게가 320인 구리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이 유물의 발굴은 당시 역사와 사회경제생활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고 한다.

###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주체의 태양

외국인들이 높이 칭송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사상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셨다.

이제께서는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마메오 카르보넬리는 방문록에 나라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세계자유화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김일성주석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공부를 배웠

### 일본항공 《자위대》 미사일기동전개훈련 감행

일본항공 《자위대》가 미사일기동전개훈련을 감행하였다.

일본항공 《자위대》가 미사일기동전개훈련을 감행하였다.

###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무력철수를 요구

도이쉴란트에서 많은 주민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자국 나라 무력의 철수를 요구해나서고 있다.

### 빙 구 열 피 해

은두라스에서 맹구열이 계속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 불순한 기도가 깔린 이중적인 태도

일마전 미집권자가 새로운 《행정책》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지난 시기에는 달리 사용 무력을 강화하고 비핵무기의 공격에 대처한 《핵무기사용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새로운 《행정책》을 발표한 것은 현 미행정부의 언동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있다. 이것은 사실로써도 그것을 알수 있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지난 시기 주요적수익원인 이스라엘을 찍어놓자 이라크가 마저 놀러오고 중동의 맹주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비호해둔다하니 그들이 기고만장해지고 못하는것이 없다. 이로 하여 중동평화문제의 해결전망이 묘연해지고 지역정세가 복잡해지고있다.

공정한 여론들이 이스라엘을 침략과 간섭의 하수인,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여 영토팽창야망을 이루어 보려고 오만하게 놀아내는 이스라엘이 짝자공리를 하는 한 중동지역이 언제 가도 평온할 수 없다고 하는것은 지당하다.

### 빈궁청산문제 언급

우루과이대통령 조세 알베르 무리가 코르도바 23일 라지오방영연설에서 나라에서의 빈궁청산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 미국의 이주민법 비난

메히코의무상이 2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주민법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 주일미군기지 설치 반대집회

미국의 워싱턴에서 25일 주일미군기지설치계획을 반대하는 항의행위가 벌어졌다.

### 수출 감소

일본에서 올해 3월달에 전년 2009회계년도에 수출액이 그전 회계년도에 비해 17.1% 감소되었다.

### 총기류범죠평안

미국에서 최근 총기류범죠평안이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고대무기를 발굴

에칠트르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까리하르에서 380여개의 구리돈을 발굴하였다.

### 주제 99

미국에서 최근 총기류범죠평안이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텍사스주에서 22살 청년이 상점과 식당에 뛰어들어 사람들한테 마구 총질을 하여 17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다.

고대무기를 발굴

에칠트르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까리하르에서 380여개의 구리돈을 발굴하였다.

계량 무게가 320인 구리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이 유물의 발굴은 당시 역사와 사회경제생활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고 한다.